한 · 캄보디아 학생 장내 기생충 관리

▲캄보디아 NGO 사업 협약서 교환(2006. 4.)

신 종 균 국제협력과장

한 ·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(NGO사업)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지역과 인접하고 관리 및 접근이 용이한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NGO 신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. 2005년 5월 현지사업 소개 및 향후 NGO 사업관련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, 그해 7월 신규 사업대상 국가의 수용 의지 및 욕구 파악과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코자 사전조사단을 파견하였다.

그 결과 캄보디아 학생들은 높은 기생충 감염률('97~' 03 총 29개 지역 학생 대상 조사결과 회충 70.1%, 구충86.4%)을 보였다. 캄보디아 보건부는 기생충 퇴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, 국립중앙말라리아 기생충증 곤충병센터를 통해 각 지역에 24개의 지역센터(Provincial Station)이 있어 우리의 NGO사업에 충분히 협력할 수 있었다. 이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.

▲ 지원차량 기증식(2006. 6.)

실무사업단 파견을 년 2회 실시하였고, 2006년도에는 중부지역(Phnompenh)과 동부지역(Kratie : 수도인 프놈펜 에서 동북쪽으로 자동차로 5시간 거리) 의 실태조사와 구충약품 투약을 실시하였다.

▲ 캄보디아 주민 식습관 조사(2006. 6)

2006년 4월 캄보디아 학생 장내 기생충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 대표단이 파견되어, 한국건강관리협회(이순형 회장)와 CNM(Duong Socheat국장)의 상호양해각서(MOU) 서명과 교환이 이루어졌다.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Mam Bun Heng 보건부 차관을 비롯한 많은 보건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캄보디아 국영방송(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) 과 각 일간지(Kampuchea Thmey Daily) 등 현지 언론의 열띤 취재가 이루어졌다.

▲ 구충약품 및 검사기자재 기증식(2006. 12. 5)

2006년 5월 1차 전문가 사업단 파견에 이어 12월 2차 전문가 사업단이 파견되었으며 중부지역 Takeo Province 등 6개 지역 24개 학교 학생 5,470명과 동부지역 Kratie Province 등 6개 지역 24개 학교 학생 5,412명을 검사하였다. 1,2차에 걸친 검사 결과 10,882명 중 2,308명(21.2%)이 양성률을 보였고, 주요 감염 충란으로는 구충, 비대흡충, 타이간흡충, 회충, 조충으로 나타났다.

2007년 1차 파견 때는 서부지역(Batdambang: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자동차로 10시간 거리) 실태조사 및 투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, 하반기에 있을 2차 파견에서는 전 지역 재감염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 2008년에는 권역별 표본조사 및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캄보디아 국립말라리아 기생충증 곤충병 예방센터(NCPEMC)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계획 하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.

▲ 캄보디아 학생 기생충 검사 실시(2006. 12. 5~12. 10)

현황과 전망

캄보디아 3개년(2006-2008년)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캄보디아 내 지역병원, 말라리아 센터 등 지역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, 중환자실, 입원실, 검사실 등의 시설은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열악하여 주민에 대한 기초 보건의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. 또한 기초 의료장비 및 약품과 기술 지원의 체계적인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아쉬웠다. 이를 위한 현지 보건 인력에 대한 기술 전수 및 교육과 한 · 캄보디아 우호증진을 위해 우리 협회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

캄보디아 소개

캄보디아(The Kingdom of Cambodia)는 면적이 181천 ㎢(남한의 약 1.8배)로 인도지나 반도 동남부(베트남, 라오스, 태국 과 접경) 에 위치하고 있으며, 연 평균기온 이 최저 20도, 최고 28도이나 3~4월에는 최고 온도 35~40도 까지 올라가는 열대몬순,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.